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우리 소식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실(레이아웃센터 104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1. 제정부 헌신예배

오늘은 재정부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는 목장 사역부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2. 목장학교 안내

목장학교를 계속 진행합니다. 각 반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청년부 Healing Hands 사역

청년부에서는 Healing Hands 사역으로 점심시간에 커피와 차를 무료로 대접합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 바이블 동서남북, 성경 한 눈에 보기 세미나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 한 눈에 보기 세미나가 선교팀 모임 관계로 9일(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에녹회실에서 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 내용: 에스겔

5. 선교부 주관 사진 및 그림 바자회 안내

선교부에서는 지난 주 토요일부터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선교사 파송을 위한 사진 및 그림 바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희망하는 그림 옆에 위치한 구매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신 후, 해당 금액을 방원곤 장로님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 민두식 목사

6. 단기 선교를 위한 물품 기증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팀에서 여름용 물품들에 대한 기증을 17일(금)까지 받습니다. 중앙 로비에 비치된 기증함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물품: 남자용 여름 바지, 여성용 옷, 어린이 옷, T-shirt, 여자용 머리 악세서리

☞ 문의: 유문식 집사 또는 신용호 목사

7. 주차장 사용 안내

교회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교역자들과 제직들께서는 축구장쪽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라며, 본당 앞쪽에 새가족들을 위해 예비된 주차공간에는 주차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섬김이

	2부	3부	4부
대표기도	David Kim	이경준	홍성준
2월 헌금	이미경, 김미영	조진욱, 황재은	고태순, 노지영
봉사 목장	기니비사우	강대상 헌화자	

지난 주 통계

출 석		헌 금	
영 아 부	연합	주 일 헌 금	\$16,496.81
유 아 부	7	선 교 헌 금	\$100.00
유 치 부	20	지 정 헌 금	\$580.00
초 등 부	41	기 타 헌 금	
Youth (EM)	61	건 축 헌 금	
장 년	365		
총 계	494	총 계	\$17,176.81

섬기는 이들

담 임 목 사	오 인 균 목사	214-681-9531	igoh55@hotmail.com
부 목 사	신 용 호 목사	832-705-2674	syhpeter@hotmail.com
새 가 족 부	민 두 식 목사	214-374-9634	mindosik82@gmail.com
청년부&찬양	김 성 기 목사	469-264-0993	ebc712rla@gmail.com
멀티미디어	민 진 성 목사	703-945-6742	minowen10@gmail.com
영 유 아 부	정 수 옥 전도사	972-809-7492	youngah2008@gmail.com
유 치 부	최 혜 빈 전도사	469-831-2815	hbchoi728@hanmail.net
초 등 부	장 진 영 목사	817-521-6243	throughjin@gmail.com
청 소 년 부	서 은 수 전도사	608-515-4258	Danielseo37@gmail.com
에 녹 회	고 재 원 목사	682-554-6986	gojaewon69@gmail.com
지 휘 자	김 광 우 집사	214-783-0441	tcakim@gmail.com
반 주 자	김 희 선 자매	469-233-9330	heesunkim630@hotmail.com

모임 안내

부 서	일 시	장 소
장년예배 1부/2부	주일 오전 8시/9시30분	본 당
장년예배 3부/4부	주일 오전 11시/오후 2시	본 당
영 아 부 예 배	주일 오전 9시 30분	영 아 부 실
유아부/유치부/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각 예 배 실
Youth 성경공부/예배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2층 채플/교실
청년부 모임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교육관 2층 비전채플
장년 영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2층 비전채플
장년 중보기도 모임	주일 오전 8시 30분/10시	중 보 기 도 실
새벽 기도회	화-토요일 새벽 6시	본 당



담임목사 오 인 균
Rev. Oh, In Gyun
1225 N. Josey Lane,
Carrollton, TX 75006
Tel.) 972-242-3942
www.hanurichurch.org



Vision 2017

서로 섬기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

주일예배순서

인도자(Presider): 오 인 균 목사

* 주기도문송 다 같 이
Lord's Prayer Together

* 기 도 인 도 자
Opening Prayer Presider

경배와 찬양 2부:두나미스찬양팀
Worship & Praise 3-4부:마라나타찬양팀

대 표 기 도 2부:황 도 윤 집사
Representative Prayer 3부:윤 성 욱 집사
4부:송 기 훈 형제

특 별 찬 양 2-3부:찬 양 대
Special Music Choir

환영 및 광고 다 같 이
Welcome & Announcement Together

* 성 경 봉 독 역대상 29:10-17 다 같 이
Scripture Reading Together

설 교 자원하여 기쁨으로 오 인 균 목사
Sermon 드리는 예물 Rev. In G. Oh

헌 금 다 같 이
Offering 헌금위원 Together

2부: 이미경, 김미영 / 3부: 조진욱, 황재은 / 4부: 고태순, 노지영

* 축 도 인 도 자
Benediction Presider

'※'표시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possible.)

감사와 기도제목

- 범사에 감사합니다.(김석희/경덕)
-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김용천/선희)
- 항상 지켜 주시고 가는 곳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노수빈)
- 장학금을 더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도유나)
- 예수님, 더 가까이 알아가고 싶어요.(박에스터)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백낙훈/옥성)
-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백용춘)
- 가족의 건강 지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안세현/경아)
-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이경준/진연)
- 올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이영빈)
- 하나님께 영광. 올해는 건강한 육신을 주옵소서(이옥수)
-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한승혜)
- 심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현용희)
- 범사에 감사합니다.(무명)
-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동행하신 것처럼 저와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무명)

선교사 중보기도

성바울 선교사 (북한)

- 북한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히 열릴 수 있도록

한우리 중보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 김윤식 집사님 (뇌졸중 회복)
- 오훈균 성도님 (재활치료)
- 서순금 성도님 (유방암 재발)
- 황재빈 어린이 (청각장애)
- 남궁홍영 성도님 (폐암)
- 민영일 성도님 (뇌경색)

목회자 칼럼

845. 조기석씨의 '작은 사랑에서 큰 사랑으로' 중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글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목회자 칼럼을 대신합니다.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숫집이 있습니다. 달랑 탁자 4개뿐인... 주인 할머니는 25년을 한 걸 같이 연탄불로 진하게 멸치국물을 우려 내 그 멸치국물에 국수를 말아냅니다. 10년이 넘게 국수 값을 2천원에 묶어놓고도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뒤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담당 PD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떠나버렸습니다. 용산역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죠. 그러나 가는 음식점마다 저를 쫓아냈고,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숫집에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자리부터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나온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물과 국수를 다시 등뿍 넣어 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이 사람은 냅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연이어 뒤따라 나온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뒤지 말고, 다쳐, 괜찮아!' 도망 가던 그 남자는 그 배려 깊은 말이 맘에 걸려 털썩 주저앉아 영영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파라과이에서 성공한 그는 한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얘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교육을 받지 못해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분에 넘치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끈질긴 중매 요구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도 아내를 사랑했던 건국일 하던 남편은 마흔 한 살이 되던 때 4남매를 남기고 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고생이 심해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 놓고 4남매랑 같이 죽을까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던 차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죽으려고 했던 그 연탄불에 다시 물을 우려낸 국물로 용산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첨엔 설익고 불고 하던 국수를 노력 끝에 은근히 밤새 끓인 할머니 특유의 다식 물로 국수 맛을 내서 새벽부터 국수를 팔았습니다. 컴컴한 새벽에 막노동, 학생,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중생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라고 아침 눈을 뜨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테이블 고작 네 개로 시작한 국숫집이 지금은 조금 넓어져 궁궐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은 밤이면 이 할머니의 침대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일하던 아줌마를 데려다 주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한 달, 두 달, 무려 넉 달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문에 쪽지가 붙었습니다.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댁에도 안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여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웃고 살아요. 가게 문 제발 여세요." 어떤 날은 석장, 어떤 날은 넉 장, 사람들로부터 편지가 계속 붙었습니다. 힘을 얻은 할머니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가게는 이제 국민의 국숫집으로 불리워집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배려와 사랑의 다식 물을 밤새 우려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파라과이 사장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 하다고 이 난리냐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배려와 연민입니다. 향기 나는 나무는 짙는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 오인관 담임목사

한우리 뉴스레터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준비모임

한우리교회는 해외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복음이 필요한 여러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까지 총 6회째 도미니카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여,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꾸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번 선교 일정은 돌아오는 2월 25일 토요일부터 3월 2일 목요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며, 단기 선교팀(신용호, 방원근, 유문식, 김형준, 유혜경, 김린다, 신지오, 이상 7명)의 주된 사역은 작년 한우리교회의 선교헌금으로 지어진 로스께마도 교회의 입당예배 주관 및 지역사회 복음 전도, 그리고 현지 목회자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단기선교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선교에는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는 것을 통감하여, 팀장인 유문식 집사님을 필두로, 단기선교 출발 날짜까지 총 6번의 준비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첫 모임은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선교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메시지로 팀원들의 심기일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 저녁 7시에도 교회에서 두 번째 준비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때는 특별히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지 선교사로 사역 중이신 최기철 선교사님 내외분도 함께 참여하여, 좀 더 입체적인 사역 설명과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로스께마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들려주시는 가운데,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 중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방해 공작들을 연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완공되었다는 간증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선교 준비모임에서는 도미니카 현지에 실제로 필요한 사역과 사항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고, 더욱 긴밀한 연락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금요일예배 안내

시 간	저녁 7시 30분	대표기도	윤성욱 집사
설 교	신용호 목사	본 문	고린도후서 4:7-18
제 목	질그릇의 사명		

주일 봉사 목장

이번 주	소망 (안태준/영림)	다음 주	기니비사우 (지선구/경자)
------	----------------	------	-------------------